

노동정책연구
2022. 제22권 제2호 pp.127~154
한국노동연구원
<http://doi.org/10.22914/jlp.2022.22.2.005>

연구논문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개선방향 : 베트남을 중심으로*

오선정**

본 연구는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의 노동시장과 직업훈련제도의 변화를 분석하고,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베트남에서 진행한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분석결과에 따른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시 개별 국가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현재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순제조업 분야의 경우 상당수 한국 기업이 단순업무로 인해 직업훈련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현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대부분은 직업훈련원 건설 등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업훈련원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이 대부분 단순생산과 품질관리에 관련된 훈련으로 미래 성장동력인 자본집약적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직업훈련은 지원되고 있지 않다. 둘째, 직업교육훈련 관련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직업훈련분야의 민관협력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경우 예산상의 제약 등으로 기업의 경비부담을 전제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과정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정례적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직업훈련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용어 : 직업훈련, 국제개발협력, 동남아시아, 베트남

논문접수일: 2022년 1월 17일, 심사의뢰일: 2022년 1월 17일, 심사완료일: 2022년 3월 24일

* 이 논문은 ‘『동남아시아 주요국 직업훈련제도 및 동남아시아 진출기업의 직업훈련 현황 연구』(오선정·김주섭, 2021)’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sunjungoh@kli.re.kr)

I. 서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낮은 인건비로 인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과거와 같이 단순 노동력에만 의존하는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다수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적 목표로 인적자원의 경쟁력 향상을 설정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공적자금원조를 통해 베트남에 직업훈련원과 대학 등을 건설하였고, 2017~2018년과 2020년에 베트남의 직업훈련제도를 연구하고 베트남 기업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기획재정부 외, 2020).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직업훈련제도와 개선방향을 연구하거나 노동시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직업훈련제도를 연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정책제언이 해당 국가의 정책 개선에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 외(2020)의 연구에서는 베트남의 직업훈련 정책 개선을 위해 World Bank와의 컨설팅을 동시에 진행하여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예산 제약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로 정책 반영까지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실적으로 반영 가능성이 높은 한국 정부의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강조하는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다. 이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시행시 가장 큰 제약은 재원의 부족인데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는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것이며, 민관협력은 2002년 몬테레이 UN개발재

1) 본 연구에서 직업훈련은 직업기술교육과 직업훈련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이는 정책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다수가 수원국의 시스템에 따라 직업기술교육과 직업훈련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이영현 외, 2013).

원충회에서 강조한 주요 개발협력 방식이기 때문이다(이훈기 외, 2014; 방호경 외, 2018; 홍성창 외, 2018). 직업훈련분야는 기업에서 필요한 잠재적 근로자의 숙련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민간기업과 협력하기에 특히 유리한 국제개발협력 분야이다.

본 연구는 다수의 동남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한국은 2017년 기준 對베트남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2위 공여국이다. 또한 한국은 1988~2019년 기준 베트남의 1위 투자국이며, 베트남은 한국 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양국은 관계가 밀접하다. 따라서 베트남의 경우 한국 기업과의 직업훈련분야 협력이 활성화될 여지가 있고 이러한 민관협력 재원을 바탕으로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개선할 수 있다.

현재까지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 관련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연구는 부족하다. 가장 유사한 연구로는 민관파트너십을 기반으로 對아세안 직업교육훈련 공적개발원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최영렬 외(2010)가 있다. 최영렬 외(2010)는 베트남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질 제고를 위해서 화학, IT, 에너지 및 광물개발, 금속가공 및 기계제작 분야에 중점적인 직업훈련이 필요하며 산업구조의 다변화 및 급속한 주력산업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한 직업교육훈련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채재은·우명숙(2013)도 직업교육훈련을 중심으로 베트남과의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베트남에 한국 기업이 상당히 진출하였지만, 이 기업들과 베트남 직업교육훈련 기관과의 협력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다(채재은·우명숙, 2013). 이밖에도 고혜원·김상호(2005)는 해외진출기업의 교육훈련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였고 특히 한국 정부가 직접 해외진출기업의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베트남의 직업훈련제도를 분석하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직업훈련원 건립과 같은 프로젝트 사업이나 민관협력 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서 개선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최영렬 외, 2010; 채재은·우명숙, 2013)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수혜

국의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컨설팅형 사업 추진 시 동남아시아 국가의 산업구조, 노동시장 등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사업의 개선방향을 찾는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전반적인 효율화 방안을 모색한 기존 연구(김철희 외, 2012; 이영현 외, 2013; 박영호 외, 2019)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최근 개발협력사업이 수원국의 자생적인 문제해결과 경제성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유도하는 접근방식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구조 변화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과 노동시장의 변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방호경 외, 2018; 홍성창 외, 2018).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은 고용노동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개관하고, 제Ⅲ장은 베트남의 노동시장 및 직업훈련 관련 현황 및 정책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제Ⅳ장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훈련 현황과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제Ⅴ장에서 국제개발협력 정책 중 직업훈련분야 사업의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Ⅱ. 고용노동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개요

‘국제개발협력’이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의미한다(『국제개발협력법』 제2조).

본 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유형을 설명하고, 직업훈련분야를 포함한 고용노동분야 전체의 주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개관한 후, 이 사업들의 특징을 분석한다. 즉 사업주체나 형식에 무관하게 직업훈련이나 고용노동 관련된 주제를 다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분석한다.

1.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유형

국제개발협력 중 무상원조자금인 공적자금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 사업의 주요 유형은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

PPP), 연수 등으로 구분된다. 프로젝트는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시행되는 대표적인 사업유형이고, 개발컨설팅은 정책 개선방향 등을 제안하는 사업유형이며, 연수는 해당국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성 등을 전수하는 사업 유형이다.

이 중 민관협력은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 회의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자는 ‘몬테레이 합의’가 채택된 후,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2010년 발표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 효율적인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시작된 사업유형이다(이훈기 외, 2014; 방호경 외, 2018; 홍성창 외, 2018). 과거 ODA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우선시하여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지원에 활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와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사회 차원에서 경제협력과 개발협력 간의 연계,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상호 호혜적 관계 구축, 그리고 한국의 발전 경험 등을 고려할 때 민관협력 방식이 보편화되고 이 유형 사업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방호경 외, 2018). 또한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시행 시 가장 큰 제약은 재원의 부족인데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는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이훈기 외, 2014).

2. 주요 고용노동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개요

가. 베트남 직업훈련 관련 ODA 전반(외교부)

1991~2020년까지 30년 동안 對베트남 ODA 지원액을 분야별로 구분시 직업훈련을 포함하는 교육분야의 예산이 3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직업훈련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었다(KOICA 홈페이지). <표 1>과 <표 2>는 각각 KOICA의 ODA 사업 중 베트남 대상 직업훈련 및 고등교육 클러스터에서 진행된 사업의 구체적 내용, 지원금액 및 사업유형을 제시한다.

<표 1>,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는 쾨년(퀴논)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하노이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한·베 친선 IT 대학

〈표 1〉 한국의 베트남 ODA 중 직업훈련분야 사업

	사업명	지원금액 (USD)	사업유형
1994~98	베트남 꾸년(퀴논)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2,500,000	프로젝트
1994~98	베트남 하노이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2,500,000	프로젝트
2011	베트남 직업훈련교사 워크숍	83,307	연수
2012	베트남 직업훈련교사 워크숍	88,307	연수
2011	베트남 빙푹성 빈곤 아동 영양빵 공급 및 맞춤형 직업훈련 사업	104,156	민관협력
2011~13	베트남 광찌성 직업훈련원 개선사업	4,530,956	프로젝트
2012~13	베트남 응에안성 한·베 기술학교 내 제과제빵과 개설	156,756	민관협력
2012~13	베트남 하노이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사후관리사업	521,030	민관협력
2012~13	베트남 꾸년 직업훈련대학 지원 사후관리사업	484,250	민관협력
2012~14	베트남 동나이성 빈곤지역 청년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용접직업학교 설립 및 운영사업	58,327	민관협력
2013~14	베트남 응에안성 빈시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	76,492	민관협력
2013~14	베트남 광찌성 중급직업훈련학교 개선사업*	29,517	프로젝트
2013~16	베트남 소수민족 직업대학 향상사업*	4,602,120	프로젝트
2013~17	베트남 산업안전보건 훈련센터 개발 역량강화사업	3,628,653	프로젝트
2013~17	베트남 중부고원 소수민족 청소년 직업대학 향상사업	4,602,121	프로젝트
2015	베트남 서비스 특화 교육을 통한 여성인력 양성	110,244	민관협력
2015~17	베트남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140,608	민관협력
2015~18	베트남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기술교육	1,101,193	민관협력
2016~17	베트남 서비스 특화 교육을 통한 여성인력 양성 직업훈련 교육사업	168,541	민관협력
2016~18	베트남 빈곤계층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원 및 보육시설 운영 사업	272,681	민관협력
2017~19	정보격차문제해결을 통한 소득격차해소와 이를 위한 ICT 정비전문가 양성 및 ICT 적정기술 비즈니스환경조성	376,709	민관협력
2017~19	베트남 저소득층 여성의 직업훈련교육 및 모자보건 교육	80,024	민관협력
2018~20	베트남 다낭 IT전문인력 양성사업	225,539	민관협력
2018~21	베트남 서비스 특화교육을 통한 여성인력양성 및 서비스 훈련체계 개선사업	30,635	민관협력

자료: 이영현 외(2013), 한국능률협회컨설팅(2019) 자료 재구성 및 *표시된 사업의 경우 KOICA 통계조회서비스(<https://stat.koica.go.kr/ipm/os/sear/detailSearchList.do?lang=ko>, 검색일: 2021. 10. 29)의 연도별 지원액을 합산.

〈표 2〉 한국의 對베트남 ODA 중 고등교육 분야 사업

	사업명	지원금액 (USD)	사업유형
1997~2001	한·베 산업기술학교 지원사업(1차)*	5,022,840	프로젝트
2004~07	한·베 친선 IT 대학 건립사업*	10,918,804	프로젝트
2006	한·베 산업기술학교 지원사업(2차)* (2007년 한·베 직업기술대학으로 승격)	12,511	프로젝트
2007~08	한·베 산업기술학교 증축 및 역량 강화사업*	2,279,829	프로젝트
2010~12	한·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을 위한 CLMV 역량강화사업	1,563,289	프로젝트
2010~13	베트남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 구축지원사업	1,273,462	프로젝트
2010~14	베트남 박장성 한·베 산업 기술대학 설립사업	8,978,932	프로젝트
2013~19	베트남 한·베 친선 IT 대학 4년제 승격지 원사업	4,774,831	프로젝트
2014~19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3차 지원사업	5,312,058	프로젝트
2014~19	베트남 하노이 개방대학교 개선사업	2,737,918	프로젝트
2014~17	베트남 경찰대 전자도서관 구축사업	1,737,199	프로젝트

주: 민관협력 사업은 제시하지 않음.

자료: 베트남: 이영현 외(2013), 한국능률협회컨설팅(2019) 자료 재구성(* 표시된 사업의 경우 KOICA 통계조회서비스(<https://stat.koica.go.kr/ipm/os/sear/detailSearchList.do?lang=ko>, 검색일: 2021. 10. 29)의 연도별 지원액을 합산.

건립사업, 한·베 산업기술학교 지원사업(1차 및 2차) 등의 직업훈련원이나 대학 건립사업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인프라 구축사업과 동시에 취약계층(여성, 소수민족, 빈곤계층 등)에 대한 민관협력 형태의 직업훈련 사업과 IT 전문인력과 같은 특정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나.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사업(고용노동부)

〈표 3〉에 제시된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사업은 한국의 OECD/DAC 가입을 계기로 수립된 ‘ODA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12년부터 시작한 컨설팅형 ODA 사업이다. 동 사업의 목적은 개도국의 사회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국의 우수한 고용노동분야 발전모델을 개도국에 전수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와 자문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 및 개도국의 빈곤 탈출 및 자립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다(김형규 외, 2021).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2~2020년 기간 동안 총 9개국에 대해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베트남은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사업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관련 사업이 4년(2012~2015년) 연속 진행되었다.

<표 4>에는 베트남 대상 사업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2012년에 정책자문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노동법전에 수록된 고용 관련 규정을 개별법으로 분리하기 위한 고용법 제정 관련 컨설팅과 자문사업이다. 2013년부터 후속사업으로 고용법 이외의 자격제도 구축과 고용서비스 전문성 강화에 대한 자문사업 등이 시행되었다.

<표 3> 2012~2020 고용노동부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사업 내용

	2012	2013	2014	2015	2017~2020
대상국	스리랑카 (직능개발)	몽골 (인력수급전망)	몽골 (산업안전)	몽골 (산업안전 기준)	라오스 (직업능력개발법)
	필리핀 (산업안전)	미얀마 (산업안전)	우즈베키스탄 (직훈제도)	캄보디아 (근로조건)	페루 (고용서비스)
	베트남 (고용법)	베트남 (고용법)	베트남 (고용법 시행령)	베트남 (고용서비스)	스리랑카 (고용서비스)

자료: <표 2> 2012~2020 고용노동부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사업(김형규 외, 2021: 3)의 재구성.

<표 4>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사업 중 베트남 대상 사업내용

사업명	■ 베트남 노동고용분야 정책자문 사업
사업기간	■ 기간: 2012~2015년(4년)
총 사업 예산	■ 총 사업 예산: 약 3억 원(9천만 원*3년, 후속 세미나)
사업유형	■ 개발 컨설팅
사업분야	■ 공공행정(교육)
사업목적	■ 고용노동분야 법·정책·제도 수립 지원 및 관련 인력 역량 강화를 통해 개도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사업세부내용 (우리정부 측)	2012 ■ 베트남 고용법 제정 정책자문사업
	2013 ■ 베트남 자격제도 구축사업 최종워크숍 및 고용법 제정 정책자문 후속 세미나 - 전문가 파견
	2014 ■ 베트남 고용법 하위법령제정 정책자문사업 - 세미나 개최, 전문가 파견, 초청 연수, 현지 최종보고회
	2015 ■ 베트남 고용서비스 전문성 강화 정책자문사업 - 전문가 파견 및 세미나 개최, 초청 연수, 현지 최종보고회

자료: <표 5> 베트남 정책자문사업 사업개요서(김형규 외, 2021: 9~10)의 재구성.

다. Knowledge Sharing Program(KSP: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KSP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맞춤형 정책제언을 제공하는 지식기반 개발협력사업으로서 KSP 정책의 협력방식은 정책자문사업, 공동컨설팅사업 및 사례연구로 구분된다(기획재정부 KSP 홈페이지). KSP의 사업분야에는 경제정책, 사회정책, 공공부문 개발 등 다양한 정책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사회정책은 인적자원개발, 보건·복지, 노동시장, 환경, 기타 사회정책이 포함되는데 인적자원개발의 주요 내용이 교육과 직업능력개발이다(기획재정부 KSP 홈페이지). 직업능력개발 관련하여 베트남과는 2017~2018년에 베트남 직업훈련과 기업발전 연계성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방안이라는 사업이 진행되었다.

3.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특징

상기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특징을 분석하고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난 30년간 진행된 對베트남 직업훈련분야의 ODA 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예산의 94.5%가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인프라 건축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2015년 이후 새롭게 시행된 직업훈련분야 사업은 모두 민관협력(PPP) 유형이지만 <표 2>에 제시된 고등교육분야는 아직까지도 프로젝트형 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이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중심 또는 하드웨어 위주 사업이라는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조정윤 외, 2012) 실제 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내실화시킬 수 있는 사업영역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까지도 인프라 설립 후 운영비 등을 확보하지 못해 실제 직업훈련원 등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 조정윤 외(2012) 등에서 직업훈련원 건립 후 운영 경비 미확보에 따른 관리운영 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다.

둘째, 2015년 이후 직업훈련분야에서 시행된 민관협력 사업에서도 기업과 연계된 사업이 부족하다. 베트남의 경우 응에안성의 ‘한·베 기술교육대학’ 프로

젝트가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된 ‘CJ 행복베이커리 사업’과 연계운영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9), 직업교육훈련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은 한국 기업과 대체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다수의 연구는 한국 기업과 직업교육훈련 기관 간의 협력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조정운 외, 2012; 채재은·우명숙, 2013: 186). 민관협력은 교육훈련 수요자에게 보다 나은 선택을 제공하고 기업의 재정 부담을 통해 훈련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최영렬 외, 2010; 방호경 외, 2018; 홍성창 외, 2018). 일본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일본의 정부기구)는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기업과 협력하여 베트남의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다(채재은·우명숙, 2013: 186). 이와 같이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과 직업훈련 관련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사례는 부족하다.

셋째,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산발적으로 진행되며 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KOICA의 프로젝트성 사업과 고용노동부나 기획재정부의 동 분야 컨설팅성 사업 간의 연계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분야 컨설팅 사업이 기획재정부(KSP)와 고용노동부에서 모두 진행되었고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경향도 있는데, 이는 시행 부처가 다른 것이 주요 원인으로 예상된다. 이미 채재은·우명숙(2013: 184)을 비롯한 다수의 연구에서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직업훈련분야 사업은 지원기관별로 사업이 별도로 지원될 뿐만 아니라 소규모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원 효과가 작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연계는 물론 정보 공유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Ⅲ. 베트남 노동시장과 직업교육훈련 제도

1. 베트남의 노동시장

<표 5>는 베트남 노동시장의 특징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2020년 기준 베트

남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8.6%로 높고(ILO 홈페이지), 노동자 수는 2019년 기준 5,737만 명으로 노동력이 풍부하다(KOICA 홈페이지). 이러한 풍부한 노동력과 더불어 낮은 인건비는 베트남의 빠른 경제성장 비결이었다. 하지만 출산율의 감소와 인구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어 노동력의 양적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경제성장과 함께 인건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 밖에도 2.4%라는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7.6%로 높고 청년 무업자 비율도 15.4%에 달한다. 특히 15~24세의 젊은 층 노동자가 전체 실업인구의 44.4%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2017년 4분기 베트남의 대학 이상 졸업자와 전문대 졸업자의 실업률은 각각 4.1%, 4.3%로 일반 실업률과 저학력 노동인구 실업률의 두 배에 달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한국고용정보원, 2021: 22~24). 노동력의 질적 측면에서도 고등교육을 받은 자가 15.6%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저숙련직과 준숙련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기획재정부 외, 2020).

〈표 5〉 베트남의 노동시장 현황

지표	연도	전체	남	여
경제활동참가율(%)	2020	68.6	75.2	62.2
고용률(%)	2020	66.9	73.7	60.4
농림어업 비율(%)	2020	27.8	28	27.5
산업 및 건설 종사자 비율(%)	2020	33.3	36.7	29.4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2020	38.9	35.3	43.2
관리자, 전문가, 기술자 비율(%)	2020	13.2	11.7	15.1
기초학력 이하 비율(%)	2020	10.8	9.8	11.9
고등교육 비율(%)	2020	15.6	14.3	17.1
실업률(%)	2020	2.4	2	2.8
청년 실업률(%)	2020	7.6	6.6	8.9
청년무업자(NEET) 비율(%)	2020	15.4	12.9	18
평균 월임금(현지 통화)	2020	6,879,753	7,237,876	6,407,485
월 최저 임금(현지 통화)	2020	4,420,000		
주 평균 근로시간(시간)	2020	41.3	42.3	40.2
주 48시간 이상 근로자 비율(%)	2020	31.1	33.8	28
1개 이상의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	2020	38.8		

자료: ILO Stat 홈페이지(<https://ilostat.ilo.org/data/country-profiles/>, 검색일: 2021. 11. 3).

산업별로 구분하면 서비스 부문 종사자가 전체의 38.9%로 가장 높고, 산업 및 건설 분야 종사자가 33.3%로 높으며, 농림어업 분야 종사자가 27.8%이다. 과거 베트남은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대한 외자기업의 투자로 성장하여 조립산업(assembly)이 단순제조업 전체 일자리의 75%를 차지하지만, 최근 전기·전자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박영호 외, 2019: 153~155). 서비스 부문 종사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베트남이 과거 농림어업 위주의 경제에서 제조업 위주의 경제로 변화한 것을 넘어 서비스 산업이 커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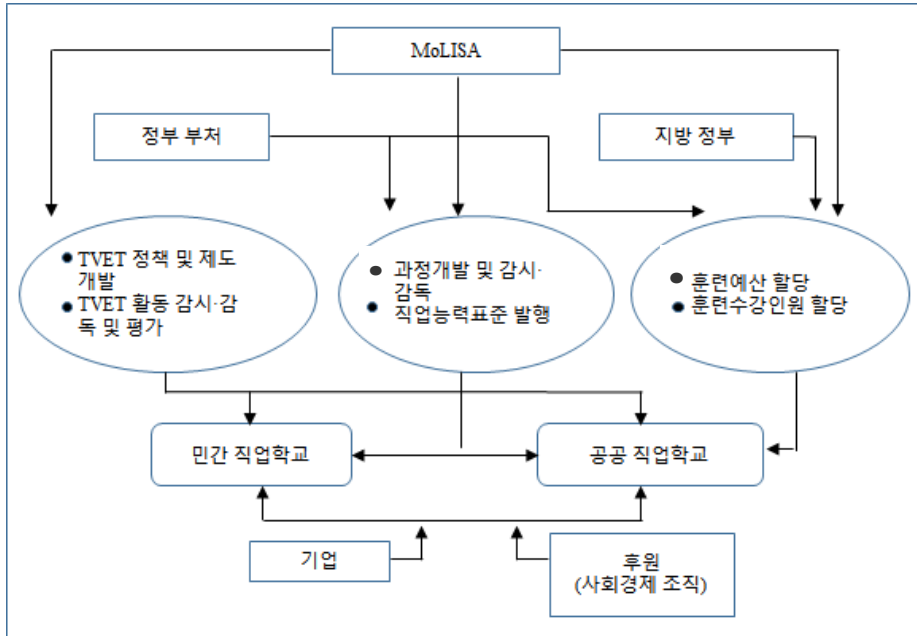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노동 생산성은 지역 경쟁자들보다 낮은 상태이며, 베트남 노동력 고령화 등의 이유로 베트남 인적자본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다(기획재정부 외, 2020). 또한 임금상승 추세로 노동집약적인 섬유·봉제, 신발 산업 등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미얀마, 캄보디아 등의 국가로 관련 산업의 기업이 유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 증가로 자국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해 관련 부품의 수입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권율, 2020).

2. 베트남의 직업교육훈련 현황과 발전전략

베트남의 직업교육훈련과 국가기술자격 제도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총괄 관리하는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노동보훈사회부(Ministry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Welfares : MoLISA)가 담당한다.

베트남의 직업교육훈련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분되고, 2018년 기준 전국적으로 1,948개의 직업교육훈련 기관이 있었는데, 대학 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중급의 직업교육훈련 기관 수가 감소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외, 2020). 2018년 베트남 전국의 직업교육훈련 등록자는 221만 명이며 이 중 약 28%만이 대학 및 중급 교육에 등록했고 나머지는 초급 수준의 프로그램에 등록했다(권율, 2020). 현재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내 훈련 직종은 산업 및 직업 분류에 따라 23개 훈련분야, 69개 직무·직업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3개 직무·직업군은 중급 수준 872개, 전문대학 수준 630개를 포함하고 있다(기획재

(그림 1) 베트남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개요



자료: Viet Nam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ector Assessment (2020)를 바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하상진 부장 작성.

정부 외, 2020).

베트남 노동력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의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SEDS 2011~2020)은 현대화된 산업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TVET)을 주요 전략으로 강조하였고, 베트남 공산당 전국대회에서 주요 논의의 핵심이 직업훈련에 맞추어져 진행되는 등 직업훈련분야를 경제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영역으로 설정하였다(한국능력협회컨설팅, 2019: 88). 구체적으로 SEDS 2011~2020의 9개 해결과제는 국가 차원의 TVET 관리 혁신, 훈련교과 및 강의자료 개발, TVET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 TVET 기관·노동시장·기업의 연계 강화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직업훈련의 질은 아세안 국가에서 캄보디아와 미얀마 다음으로 최하 순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권윤, 2020). 베트남 직업훈련의 한계의 대표적인 이유로 1) 직업훈련과 직업자격과의 낮은

연계성, 2) 미약한 산학연계, 3) 훈련 및 교육의 질 관리 미흡, 4) 교사 역량 부족 등을 들 수 있다(기획재정부 외, 2020; 이영현 외, 2013).

따라서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21~2030 직업훈련 발전전략 개혁 목표에서 베트남 정부는 직업훈련의 질을 제고하여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등 TVET의 질적 측면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숙련 노동인력 공급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핵심 직종에 참여하는 중급 이상 수준의 훈련생 비중을 확대하고자 한다.

<표 6> 2021~2030 직업훈련 발전전략 개혁 목표

해결과제	실천방향
총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의 품질과 효율성 측면에서의 과감한 변화 - 품질 인적자원을 포함한 숙련 노동인력 공급, 선진국 수준의 노동인력 양성 - 이를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과 세계화 시대의 경제성장의 질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
2030년까지 달성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급 이상 수준의 훈련생 비율을 약 40%까지 확대하며, 그 중 최소 20%는 핵심직종 훈련참여 · 최소 85%의 TVET 졸업생이 생산성과 급여가 높은 직업에 종사 · 120개의 고품질 훈련기관 개발 및 그 중 10개의 기관은 G20 국가 수준, 70개는 ASEAN 상위 4개국 수준에 도달. 200개의 핵심 직종 및 90개의 직종은 ASEAN 상위 4개국과 G20 국가 수준에 도달 · 베트남 TVET이 전반적으로 ASEAN 지역 선진국 수준에 도달

자료: 2021~2030 TVET 발전전략 개혁 목표(기획재정부 외, 2020: 62~63)의 재구성.

IV.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직업훈련 현황 및 수요

본 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지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현황과 수요를 분석하고, 산업이나 기업특성별로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상이한지 추가로 분석한다.

1. 연구방법

가. 설문조사 개요

2021년은 COVID-19 확산으로 인해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이하 진출기업으로 지칭) 대상 대면 설문조사가 불가능하였다. 이로 인해 2021년 9월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표 7>은 실태조사의 개요이다. 설문조사의 시행 대상은 베트남 하노이 및 호찌민 한국상공인연합회의 회원사였고, 주베트남한국대사관의 협조로 전자분야 대기업 A와 B의 협력사도 포함되었다. 설문 대상은 현지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한국 기업으로, 한국 기업은 한국에 모기업이 있는 자회사이거나, 한국에서 자본금 기준 51% 이상 출자한 기업이거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 진출기업 명부에 등록된 기업이거나, 업체 대표가 한국인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표 7>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현지 근로자 대상 직업훈련 실태조사 개요

	내 용
조사대상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표본 수	186개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구글 설문조사)
조사도구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기간	2021년 9월
조사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조사내용	일반현황, 현지채용 베트남 근로자의 일반현황, 베트남 근로자의 능력 및 교육훈련 실시현황,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 등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주력 상품의 시장 수요 등 일반현황, 현지채용 베트남 근로자의 일반현황, 베트남 근로자의 능력 및 교육훈련 실시현황,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이다. 국내 문헌 및 자료 조사 후 현지 기업 관계자 2인, 한국상공인연합회 관계자, 주베트남한국대사관 노무관과의 회의를 통해 설문조사 내용을 구성한 후 전문가 2인의 자문을 받아 설문조사 내용을 수정하여 실시하였다. <표 8>은 분석에 사용된 설문조사의 문항과 선택항목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표 8〉 설문조사 및 원자료 형태

설문문항	선택항목
(베트남 내) 귀 사업장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① 제조업 ② 무역업 ③ 운수/창고업 ④ 서비스업 ⑤ 금융업 ⑥ 건설업 ⑦ 1차산업 ⑧ 기타
(제조업) 구체적 업종은 무엇입니까?	① 음·식료품 ② 섬유, 봉제의복, 모피제품 ③ 가죽, 가방, 신발 ④ 목재, 나무제품, 가구 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⑥ 코크스·정유류 ⑦ 화합물 및 화학제품 ⑧ 고무 및 플라스틱 ⑨ 금속(비금속·조립·1차금속)류 ⑩ 기계·장비 ⑪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⑫ 전자·통신장비·전기기계류 ⑬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⑭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송장비 ⑮ 기타
베트남 근로자가 업무에 숙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① 1주일 정도 ② 1개월 정도 ③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④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⑤ 6개월에서 1년 정도 ⑥ 1년 이상
(베트남 내) 귀 사업장 내 베트남 근로자의 평균적인 교육수준은 무엇입니까?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직종별로 한국인 근로자 및 베트남 근로자의 수는 몇 명입니까?	__명
베트남 근로자에게 과거 1년간 신입직원교육, 직무능력향상 등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지원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업무가 단순하여 교육훈련을 시킬 필요가 없다 ② 예산이 부족하여 교육훈련을 시킬 여력이 없다 ③ 인력난으로 교육훈련 시간을 주기 어렵다 ④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높아 교육훈련의 이점이 없다 ⑤ 회사 실정에 맞는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없다 ⑥ 교육훈련의 성과가 낮아 기업에 도움이 안 된다 ⑦ 교육훈련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과 이해가 낮다 ⑧ 교육훈련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과 이해가 낮다 ⑨ 기타
재직근로자 대상 베트남의 직업훈련 관련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향후 베트남의 직업훈련 관련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실태조사는 한국상공인연합회 회원사 및 대기업 협력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등록된 회사 이메일 주소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참여 이메일을 발송하고 응답을 독려하기 위하여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각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실태조사에 응답한 업체는 총 186개로, 하노이 소재 기업이 162개이고 호찌민 소재 기업이 24개이다. 호찌민의 경우 하노이에 비해 COVID-19 확산 정도가 심해 설문조사 기간 동안 도시가 전면 봉쇄되었기 때문에 하노이에 비해 응답이 저조하였다.

<표 9>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구축한 변수의 기초통계를 보여준다. 응답업체의 업종은 단순제조업, 자본 및 기술집약적 제조업, 서비스업·금융업 및 기타로 그룹화하여 구분하였다. 제조업 중 음·식료품, 섬유, 봉제의복, 모피제품, 가죽, 가방, 신발, 목재, 나무제품, 가구,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코크스·정유

<표 9> 기초 통계

(단위: %, 명)

변 수			평균 또는 비율
업종	단순제조업		30.11
	자본 및 기술집약적 제조업		40.86
	서비스업·금융업		11.83
	기타(무역·운수·창고업, 건설업 등)		17.20
원인 변수	베트남 근로자의 업무숙련 소요시간	1개월 미만	15.05
		1~3개월	26.88
		3~6개월	30.65
		6~12개월	18.28
		1년 이상	9.14
베트남 근로자의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13.98	
	고등학교 졸업	60.75	
	대학교 졸업	25.27	
소재지	하노이 인근	87.10	
	호찌민	12.90	
베트남 근로자 수(명)			639.99
베트남 근로자 비율			93.94
결과 변수	직업훈련 실시 여부		62.37
	단순업무로 인해 직업훈련 불필요 여부		12.37
	적절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부존재 여부		12.90
	베트남 직업훈련 관련 사업 참여 여부		9.14
	베트남 직업훈련 관련 사업 참여 희망여부		70.97

류, 고무 및 플라스틱, 금속(비금속·조립·차금속)류를 단순제조업으로 구분하였다. 업종별 분포를 보면 단순제조업이 전체의 30.11%, 자본 및 기술집약적 제조업이 40.86%, 서비스업·금융업이 11.83%, 기타업종이 17.2%(무역·운수·창고업 8.6%, 건설업 5.38%, 기타산업 3.23%)이다. 베트남 근로자의 평균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이 13.98%, 고등학교 졸업이 60.75%, 대학교 졸업이 25.27%로 고등교육을 받은 베트남 근로자의 비율이 높지 않다. 베트남 근로자가 업무숙련에 소요되는 기간은 1개월 미만인 기업이 15.05%, 1~3개월 26.88%, 3~6개월 30.65%, 6~12개월 18.28%, 1년 이상 9.14%이다. 베트남 근로자 수는 평균 639.99명이고, 전체 근로자 중 베트남 근로자의 비율은 평균 93.94%이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한 기업은 전체의 62.37%이고,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 단순업무로 인해 직업훈련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12.37%, 적절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없어서 실시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12.9%이다. 기업의 9.14%가 재직근로자 대상 베트남의 직업훈련 관련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70.97%가 향후 베트남의 직업훈련 관련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참여의향이 현재 참여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분석방법

기업의 특성별로 정부지원의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상이한지 식 (1)을 이용하여 로짓모형으로 분석한다. 식 (1)의 종속변수 y_i 는 분석에 따라 <표 9>에 제시된 결과변수인 직업훈련 실시 여부, 직업훈련 불필요 여부, 직업훈련 프로그램 부존재 여부, 베트남 직업훈련 관련 사업참여 여부 또는 향후 관련 사업 참여 희망 여부로 기업 i 가 각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Z 벡터는 기업특성 변수벡터로 업종 더미(준거집단은 단순제조업) 및 기업소재지 더미(호찌민이면 1, 아니면 0)가 기본적으로 포함되며 분석에 따라 베트남 근로자의 업무숙련에 소요되는 시간(연속변수)²⁾, 베트남 근로자의 평균 교육수준이 대학교육인 더미변수(대학교육이면 1, 아니면 0), 베트남 근로자의 수

2) 연속변수 구축시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12개월 이상은 12개월로 처리하고 나머지 선택항목은 중위값을 사용하였다.

(연속변수), 베트남 근로자의 비율(연속변수)이 순차적으로 추가된다. 업종과 기업소재지 더미를 제외한 독립변수를 점증적으로 추가한 이유는 독립변수간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준오차는 기업 소재지 수준의 군집 표준오차를 사용하였다.

$$y_i^* = \alpha + Z_i' \beta + \epsilon_i \quad (1)$$

$$\begin{aligned} \text{prob}(y_i = 1) &= \text{prob}(\alpha + Z_i' \beta + \epsilon_i > 0) & (2) \\ &= \frac{\exp(\alpha + Z_i' \beta)}{1 + \exp(\alpha + Z_i' \beta)} \end{aligned}$$

2. 분석결과

가. 업종별 차이

<표 10>은 업종별 직업훈련 현황과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수요를 분석한 결과이다. (1) 열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분석의 준거집단인 단순제조업에 비해 자본·기술집약적 제조업에서 재직자 대상 직업훈련을 실시했는지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하지만 서비스업·금융업에서는 단순제조업보다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험이 많고, 기타 업종은 단순제조업보다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험이 적다. (2) 열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직업훈련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자본·기술집약적 제조업과 서비스업·금융업 모두에서 단순제조업보다 낮다. 또한 (3) 열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본·기술집약적 제조업에서 단순제조업에 비해 재직자 대상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 적합한 프로그램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 열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의 직업훈련 사업에 참여한 경험은 단순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금융업에서 높지만, 자본·기술집약적 제조업과 기타 업종의 사업 참여 여부는 단순제조업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5) 열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직업훈련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지 여부는 모든 업종에서 높게 나타나 업종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이밖에도 호찌민에 위치한 기업의 직업훈련 실시 및 필요한지 여부,

직업훈련 사업 참여 여부나 참여 희망 여부는 하노이에 위치한 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난 반면에 직업훈련이 부족하여 재직자 대상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높게 나타났다.

〈표 10〉 직업훈련 현황 및 사업 참여의향 분석결과(한계효과) : 업종별 차이

변수명	(1) 직업훈련 실시 여부	(2) 직업훈련 불요 여부	(3) 직업훈련 부족 여부	(4) 직업훈련사업 참여 경험	(5) 직업훈련사업 참여 희망
자본·기술집약적 제조업	0.033 (0.083)	-0.111** (0.046)	0.081*** (0.020)	0.025 (0.027)	0.059 (0.093)
서비스업·금융업	0.026*** (0.007)	-0.018** (0.008)	0.022 (0.023)	0.012* (0.006)	-0.027 (0.026)
기타 업종	-0.119** (0.052)	-0.009 (0.008)	0.149*** (0.001)	-0.023 (0.025)	0.010 (0.049)
호찌민	-0.088*** (0.019)	0.085*** (0.009)	0.032*** (0.009)	-0.069*** (0.009)	-0.131*** (0.031)
표본수	186	186	186	186	186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표 11〉 직업훈련사업 참여의향 분석결과(한계효과) : 기업특성별 차이

변수명	(1)	(2)	(3)	(4)
자본·기술집약적 제조업	0.057 (0.079)	0.057 (0.084)	0.042 (0.090)	0.044 (0.089)
서비스업·금융업	-0.035** (0.017)	-0.020*** (0.001)	-0.023*** (0.001)	-0.024*** (0.003)
기타 업종	-0.025 (0.033)	0.029 (0.028)	0.038 (0.026)	0.045 (0.035)
업무숙련 소요시간	0.020** (0.009)	0.020* (0.010)	0.020** (0.010)	0.020** (0.010)
대학교육 여부		-0.071 (0.087)	-0.037 (0.079)	-0.017 (0.059)
베트남 근로자 수			0.000*** (0.000)	0.000*** (0.000)
베트남 근로자 비율				0.003 (0.003)
호찌민	-0.121*** (0.031)	-0.118*** (0.029)	-0.101*** (0.027)	-0.099*** (0.027)
표본수	186	186	186	186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나. 업종 이외의 기업특성별 차이

<표 11>은 업종 이외의 기업특성변수를 추가하여 직업훈련 사업의 참여 희망 여부가 기업특성별로 다른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업종별 직무에 필요로 하는 숙련수준, 평균 교육수준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표 11>에서 업종 더미변수의 추정치는 통제변수로 포함된 기업의 특성이 동일한 경우 업종별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지 업종별 단순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해석하지 않는다. 기본 통제변수는 업종과 호찌민 더미변수이며 기업특성 변수가 순차적으로 추가되었다.

<표 11>의 (1)~(4) 열에 따르면 베트남 근로자의 업무숙련 소요시간이 길수록 직업훈련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높게 나타난다. 다만 <표 11> (2)~(4) 열의 대학교육 여부 추정치에 따르면 베트남 근로자의 평균 교육수준이 대학 졸업자인지 여부는 직업훈련 사업의 참여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절대적인 교육수준이 기업의 직업훈련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에 필요한 시간이 직업훈련 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표 11>의 (3)~(4) 열에 제시된 바와 같이 베트남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직업훈련 사업의 참여의향은 높지만 추정치의 크기는 작고, (4) 열에 제시된 바와 같이 베트남 근로자의 비율은 직업훈련 참여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베트남 근로자의 비율은 평균 94%에 육박할 정도로 높고 표준편차가 작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호찌민에 위치한 기업에서 직업훈련 참여의향이 더 낮다.

3.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도출할 수 있는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관련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 10>의 (2) 열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직업훈련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단순제조업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직업훈련원 건설 등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업종별 직업훈련의 수요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종별 직업훈련에 대한 상이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원 등의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이곳에서 제공되는 직업훈련 과정의 내용과 관련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필요하지만, 현재 이처럼 직업훈련원 운영에 관한 사업은 전무하다. 이에 대한 베트남 정부 측의 요청도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관련 사업이 없는 것은 조정윤 외(201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의 제약이 주된 이유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과정을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건축된 직업훈련원이나 교육기관에서 우선 운영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기업을 통해 충당하는 민관협력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표 10>의 (3) 열에 따르면 자본·기술집약적 제조업에서 적절한 직업훈련이 없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단순제조업에 비해 높게 선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박영호 외(2019)에서 수요국의 인력수요 전망에 따라 직업훈련분야 ODA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를 제시한 바와 같이, 베트남의 산업변화에 따라 향후 성장할 산업 분야의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여 직업훈련분야 ODA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베트남 정부의 2021~2030 직업훈련 발전전략 개혁 목표에서도 직업훈련의 질을 제고하여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의 단순제조업 기업이 다른 동남아 국가로 급속히 이전하여 한국의 기업 중에서도 단순제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자본·기술집약적 제조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베트남 현지에서 자본·기술집약적 제조업에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부족해 이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표 10>의 (4) 열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업 및 금융업의 한국 진출기업에서 타 업종에 비해 자체적으로 직업훈련을 많이 하고 있고 베트남 정부의 직업훈련사업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의 최대 산업으로 성장한 서비스 산업 등에 진출할 한국 기업을 지원할 사업의 발굴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표 11>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근로자가 업무숙련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 베트남 정부에서 향후 시행할 직업훈련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직업훈련 과정의 개발에 있어

업무숙련에 소요되는 시간이 긴 직종에 대한 세부 분석을 하고 기업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를 조사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베트남 노동시장과 직업훈련 제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현지 진출기업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직업훈련 수요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준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상당수의 한국 기업들이 직업훈련을 자체적으로는 시행하고 있으나 단순 교육에 치중하고 있고, 외부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직업훈련은 질과 양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 정부의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직업훈련 수요를 충족할 여지가 많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추진된 방식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KOICA의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 CPS)의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국가협력전략이란 보다 효과적으로 공여기관들의 원조 활동이 협력국의 개발성과 달성에 기여하도록 성과 관리 및 성과 제시를 위해 활동에 근간이 되는 전략과 계획을 명시한 4~5년 기간의 전략 문서이다. 베트남 산업전략의 변화에 따라 한국의 對베트남 외무상원조의 1기(2011~2015년) CPS에서 3대 중점분야가 환경 및 녹색성장, 기술·직업 훈련 및 도로 등 교통인프라였지만 2기(2016~2020년) CPS에서는 1기의 ‘기술·직업 훈련’이 ‘과학기술 및 분야별 고급인력 양성을 통해 현대산업국가 진입 지원’으로 변화되었다. 지금까지 시행

한 對베트남 직업훈련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사업은 인프라 구축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직업훈련원 등에서 실제 운영되는 직업훈련 과정에 관련한 사업의 부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예산상의 제약 등이 주요 원인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산상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민간의 재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민관협력의 강화이다. 또한 직업훈련 자체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이기 때문에 현지 기업의 수요와 무관한 사업 자체는 의미가 없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개별 국가들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10년 전 연구인 조정윤 외(2012)에서 현지 노동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이 없다는 것을 직업교육훈련 ODA의 한계로 지적한 바 있고, 어수봉 외(2019), 박영호 외(2019) 등은 수요국 산업인력의 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직업훈련분야에 국한되지는 않았지만 방호경 외(2018), 홍성창 외(2018) 등의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 글로벌 가치사슬과 노동시장의 변화 등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현재 비중이 높은 산업이 아니라 향후 성장할 산업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하므로 산업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단순제조업 분야에 진출한 상당수의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단순업무로 인해 직업훈련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대부분은 직업훈련원 건설 등 프로젝트 사업에 치중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원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이 대부분 단순생산과 품질관리에 관련된 훈련이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도 베트남의 산업발전에 따른 직업훈련분야 목표인 ‘과학기술 및 분야별 고급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베트남에서 근로자의 38.9%가 서비스 부문 종사자이

고, 현지 한국 기업 중 서비스업·금융업에서 베트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수요가 많고 현재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직업훈련분야 사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업교육훈련 관련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립할 때에는 현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내 업무숙련에 소요되는 시간이 긴 직종에 대한 기업의 직업훈련 수요가 높지만 이러한 직종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진행한 주관식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의 경우 공산주의 국가라는 특성으로 인해 산업안전 등에 대한 규제가 강하여 관련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높다. 하지만 현재까지 ‘베트남 산업안전보건 훈련센터 개발 역량강화사업(2013~2017년)’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사업을 제외하고는 동 분야 사업을 찾아보기 어렵다. 인프라 구축사업과 같은 하드웨어 사업에 비해 산업안전 관련 직업훈련 과정을 개발하는 등의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고 수요가 많아 비용 대비 편익의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성도 높지만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기업의 수요를 조사하지 않는 등 기업과의 협력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립할 때에는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수요가 높은 분야의 직업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민간협력을 바탕으로 한 직업훈련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인 고용노동부의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사업이나 개도국 고용서비스 전산망 구축사업도 동남아시아 국가 직업훈련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훈련이란 고용서비스 등 다른 노동분야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서로 결합하여야만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사업에서 아직 베트남의 직업훈련분야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추후 사업을 진행한다면 직업훈련분야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사례금을 지급하는 온라인 설문 결과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응답한 기업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온라인으로 응답이 가능한 베트남 현지 기업은 전산망이 구축되는 등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업이라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직업훈련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단순제조업 분야의 한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출된 정책 방향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사업의 세부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대표성을 갖는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정례적으로 현지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직업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혜원·김상호(2005). 『해외진출기업의 교육훈련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권율(2020). 「베트남의 산업화 현황과 특징」. 『베트남 노동체제와 발전방안』(이정희·권율·박재명·Pham Thi Thu Lan 외(2020)) 제2장. 한국노동연구원.
-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한국직업능력개발원(2020). 『4차 산업혁명 대응 인력양성을 위한 베트남 기술직업교육훈련 및 직업자격제도 지원 방안 수립』.
- 김형규·이종선·신재은(2021).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사업 종합평가 최종보고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철희·이영현·조경원(2012). 『직업훈련분야 ODA 통합 추진전략 연구: 직업훈련 ODA 콘텐츠 적용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 한국국제협력단.
- 박영호·정재욱·김예진·정민지·황규희(2019).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 전망 방법론 연구: 직업교육 ODA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방호경·김대홍·김형주·고희채·정재완·권경덕(2018).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한 한국과 개발도상국 간 개발협력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오선정·김주섭(2021). 『동남아시아 주요국 직업훈련제도 및 동남아시아 진출 기업의 직업훈련 현황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어수봉·강순희·임진호·이예지·김나영(2019). 『개발도상국 노동시장 수요조사 방법론 개발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 이영현·김희정·이경철·권현진(2013). 『직업훈련 프로그램 종합평가 보고서 :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국제협력단.
- 이훈기·김희경·조용훈(2014).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 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 조정윤·오호영·곽재성·윤성학·정지선(2012). 『신 아시아 구상 실현을 위한 對중남아시아 직업교육훈련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방안(II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채재은·우명숙(2013). 『베트남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 직업교육훈련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영렬·조정윤·오호영·박문곤·박복영(2010). 『對아세안 직업교육훈련 공적개발원조 활성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고용정보원(2021). 『베트남 고용서비스 전산망 구축사업 자체평가 보고서』.
- 한국능력협회컨설팅(2019). 『베트남 KOICA ODA사업 국별 포트폴리오 평가 보고서』.
- 홍성창·신원규·김대홍·방호경·유찬용·김주희·김민정·문경연·김석우(2018). 『민간-공공 개발협력 파트너십의 현황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기획재정부 KSP 홈페이지. <https://www.ksp.go.kr/index> (검색일 : 2021. 8. 2).
-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해외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main.do> (검색일 : 2021. 11. 5).
- ILO 홈페이지. ILO Stat. <https://ilostat.ilo.org/data/country-profiles/> (검색일 : 2021. 11. 3).
- KOICA 홈페이지. OPEN Data Portal. https://www.oda.go.kr/opo/area_nation/769/detail.ao (검색일 : 2021. 10. 27).

Policy Recommendations to Improve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The Case of Vietnam

Oh, Sun Jung

This study seeks policy directions to improve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the field of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In this study, an online survey of 186 Korean companies operating in Vietnam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ir demands related to the TVET,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compared with the curr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Vietnam.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en develop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the field of the TVET,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labor market of each country should be considered. Many Korean companies in the simple manufacturing sector, which currently accounts for a large proportion in Vietnam, responded that they did not need vocational training due to simple tasks. However, most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currently focus on building vocational training centers, and most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offered at these centers are related to simple production and quality control. Second, it is important to actively reflect companies' demands into the TVET projects, and to this end, Public-Private Partnership should be strengthened. Due to budget constraints, it is necessary to operate the training programs requested by companies on the premise of corporate expenses. In the future, the projects in the field of the TVET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regular demand surveys of companies in the recipient countries.

Keywords : TVE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outheast Asia, Vietnam